

친애동기와 권한이 협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영미·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친애동기의 하부 2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성격 요인인 친애동기 유형과 상황 요인인 권한 소유정도에 의해 협동행동의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피험자 분류과정에서 568명의 여자대학생에게 친애동기(차재호, 1984) 척도를 실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친화동기 집단과 거부적정 집단을 분류하였다. 실험 과정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이용하여 권한의 소유정도 조작과 협동 선택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협동 선택을 했으며, 친화동기 집단이 거부적정 집단보다 협동 선택을 더 많이 했고, 높은 권한 조건에서 낮은 권한 조건에서보다 협동 선택을 더 많이 했다. 또한 친화 동기 집단은 권한 소유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높은 협동 선택을 한 반면, 거부적정 집단은 높은 권한 조건일 경우에는 친화동기 집단과 유사한 협동 선택을 했으나 낮은 권한 조건일 경우에는 가 장 적은 협동 선택을 하여 권한 소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동기의 일종인 친애동기(affiliation motive)는 "타인과의 긍정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회복하는데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특성"(Atkinson, 1954, p.406)이다. 이런 특성은 개인의 지각 및 행동상에 나타나지만 그 특성이 서로 모순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친구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거나 방문하는 행동을 하지만(McAdams와 Constantian, 1983), 친애동기와 인기도(popularity)의 관계는 부적상관이 있다(Atkinson, Heyns와 Veroff, 1954; Shipley와 Veroff, 1952). 또한 일반적으로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집단에서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관리자의 역할 중에서도 통합·조정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친애동기가 높았다(McClelland, 1985). 이는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집단 성원들간의

조화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대인지향적 특성을 근거로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협동적이고 동조하려라 가정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Walker와 Heyns, 1962). 그 원인은 친애동기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무관심한 반면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친애동기를 특성이 서로 다른 몇가지 하부 요인들로 분류할 수 있고, 동시에 상황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요인과 상황요인이란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친애동기의 본질을 보다 깊게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격요인

친애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재검토한 Boyatzis (1973)는 친애동기와 다양한 행동 및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곡선적 관계의 양상을 띠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기존의 친애동기 측정체계 (Atkinson 등, 1954 : Shipley와 Veroff, 1952)가 추동-감소적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친애동기의 “접근적 (approach) 측면”과 “회피적 (avoidance) 측면”, 혹은 “긍정적인 친애목표에 대한 희망”과 “부정적인 목표 상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친애동기도 성취동기나 권력동기에서처럼 Miller(1951)의 접근-회피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접근적 친애동기와 회피적 친애동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애동기의 접근적 요인의 특성이 높은 사람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타인을 믿음직하고 친절할 사람으로 지각했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미소나 친절할 행동 등과 같은 긍정적 단서를 자주 사용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불안감을 적게 느꼈다(Mehrabian과 Ksionzky, 1974 ; Solar와 Mehrabian, 1973). 따라서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에게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게 되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지속된다.

한편, McAdams(1980)는 친애동기에서 이와같은 접근적 요소를 분리하여 친화동기(intimacy motive)라는 구인을 새로이 만들어 냈다.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은 동료들로부터 자연스럽고 다정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반면, 동시에 지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았다. 또 이런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은 깊고 안정된 교우관계를 맺고 있고, 자서전적 회상을 할 때 친화경험을 더 많이 회상하고 있다 (McAdams, 1982b). 또한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아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며, 직업에서의 성공, 여가선용 및 원만한 결혼생활 등 생애적응과도 정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져 (McAdams와 Vaillant, 1982), 친화동기가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친애동기의 회피적 요인 특성인 거부적정 (fear of rejection)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타인을 덜 신뢰하고 자신 역시 덜 믿음직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발

생하는 긴장이 크기 때문이다(Mehrabian, 1976 ; Mehrabian과 Ksionzky, 1974).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불편함과 불안 때문에 유발된 감정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 반응을 받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시키며, 이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생애적응을 잘했던 점과는 대조되는 특성이다.

상황요인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 행동이 가능하거나 특히 자신의 상황이 타인보다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 대신에 협동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게되는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다. 즉, 자신이 행동의 권한(주도권 : power)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협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행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인가가 높은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친애동기와 협동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그 기본적 기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특성과 행동간의 관계만을 고려해왔을 뿐, 특히 협동과 이기적 선택이 모두 가능한 역동적인 딜레마 상황에서의 권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 : PDG)을 이용했다. 이는 ‘이득과 손실’이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적 행동을 할지 혹은 경쟁적인 이기적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미묘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혼합-동기 게임이다. Solomon(1960)은 PDG에서 신뢰의 발달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부분적 권한상황 (partial power condition, 1)을 이용했다.

이 매트릭스는 PDG에서 딜레마 상황이 권한 (power)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역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매트릭스 구조이다.

이런 부분적 권한의 구조하에서 낮은 권한조건에 있

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차별적 권한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게된다. 예를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권한조건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협동적 반응을 유도하여 자신의 결과를 더 예측 가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역권한(counter power)을 이용할 수 있다(Jones와 Gerard, 1967). 따라서 낮은 권한 조건의 개인이 응중 및 동조, 협동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중의 하나인 환심사기(ingratiation) 책략에 의한 것이다(Jones, 1964). 이에 근거하여 권한상황은 협동 및 이기적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높은 권한조건에 있는 피험자는 PDG의 일반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행동선택이 우세(Pruitt와 Kimmel, 1977)하지만, 낮은 권한조건에 있는 피험자는 환심사기책략을 이용해서 협동적 선택을 할 것이라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권한 상황 요인은 개인의 성격 요인인 동기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즉,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적인 특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의 정도에 관심이 적을 것이므로 권한 상황에 따른 협동적 행동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적게 보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부적정적 특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지만, 또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속성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거부당할 위험이 없는 상황(권한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수준이 낮아져 이기적 행동을 표출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권한이 낮은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불안 수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경향이 높아져 협동적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권한조건(높은 권한과 낮은 권한)과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특성으로 친애동기의 두가지 유형이 협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친화동기와 거부적정 집단은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라 협동행동의 선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1: 친화동기 집단은 거부적정 집단보다 협동 선택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2: 높은 권한조건은 낮은 권한조건보다 협동 선택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3: 친화동기 집단은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라 협동적 선택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4: 거부적정 집단은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라 협동적 행동 선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거부적정 집단이 권한이 낮은 상황에서 가장 협동적 선택을 많이 할 것이고, 거부적정 집단이 권한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협동적 선택을 적게 할 것이다.

주 1) 부분적 권한 매트릭스

| | | B: 높은 권한 조건 경기자 | | | |
|---------------------|---|-----------------|-----|-----|-----|
| | | O | | P | |
| A (낮은 권한 조건 경기자) | X | -30 | -30 | -30 | +40 |
| | Y | -20 | -10 | -10 | -20 |

B는 O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점수(-30이나 -10)보다는 P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점수(+40이나 +20)가 더 높다. 그렇지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자신에게는 점수가 주어지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O나 P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인 A는 점수를 얻기도 하고(+점수) 잃기도(-점수) 한다. 그러므로 B는 높은 권한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B가 O나 P중 하나를 선택했다라도 A가 X나 Y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B가 얻을 수 있는 점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들면, B가 O를 선택했을 경우라도 A가 X를 선택하면 30점을 얻지만 A가 Y를 선택하면 10점만 얻게 된다. 그러므로 B는 절대적인 권한이 아닌 A의 선택에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되는 부분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방법 및 결과

피험자 분류 과정

방법 및 절차

대상: 1990학년도 1학기 연세 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 전교 대상 심리학 강좌 수강생중 여학생 575명에게 친애동기 질문지를 실시했다. 이중에서 기제가 불성실

한 자료를 제외한 568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친애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이 연구의 기본적 관심이 친애동기와 권한상황간의 상호작용에 있으므로 성별(性別)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도 구 : 접근적 친애 동기와 회피적 친애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차재호(1984)의 친애경향성 척도 21문항과 배척민감성 척도 23문항을 이용했다. 총 44문항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9점 척도상에(-4: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표시하도록 했다.

결 과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 척도별 점수 <표 1>

본 연구에서는 친애경향성 척도상에서는 상위 30%에 속하면서 배척민감성 척도상에서는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을 "친화동기 집단"으로, 친애경향성 척도상에서는 하위 30%에 속하면서 배척민감성 척도상에서는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을 "거부적정 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을 분류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및 상관 관계

친애경향성 21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고 배척민감성 2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따라서 두 척도는 신뢰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애경향성 척도와 배척민감성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 = .06$ 으로 나와 두 척도는 친애동기의 접근적 요소와 회피적 요소를 각기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과정

방법 및 절차

피험자 : 피험자 분류과정에서 친화동기 집단에 속한 44명과 거부적정 집단에 속한 43명을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다. 한번의 실험에 두명씩 참가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는 사람끼리는 가능한한 피하도록 했다. 그 결과 82명이 실험에 참가했다. 이중 권한에 대한 조작이 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변량분석에서 각 집단의 등변량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집단의 피험자 수를 같게 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17명씩 총 6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 계 : 고정효과 모형의 2(친화동기 대 거부적정) × 2(권한 소유정도의 높음 대 낮음) 완전무선 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장 치 : 본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호환 기종으로 16bit- AT 두대이며 화면의 크기는 14인치 (inch)였다. 두명의 피험자는 각기 한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였고, 피험자가 마주 보도록 되어 있는 테이블의 사이와 입구쪽 측면에 칸막이가 있어 서로의 상대방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나 매력 정도가 협동 선택에 오염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대의 컴퓨터는 코넥터(connector)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통신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실험 전반부에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두명의 경기 자간에 게임의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의 상대가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칸막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상대방이라고 인식하도록 조작할 수 있었다.

권한의 소유정도 및 보수구조에 대한 조작 : 각 피험자의 권한과 보수를 조작하기 위해 Solomon(1960)의 부분적 권한 매트릭스를 이용했다. 각 매트릭스 내의 점수(U)를 $aU+b$ (a, b 는 상수, $a > 0$)로 변형시키고 전체 시행에서 같은 구조의 매트릭스를 제시했다(pure matrix condition).

프로그램된 상대방의 반응 책략 : 상대방의 반응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20회의 본 시행중 협동과 이기적 선택이 각각 10회씩 되도록 하며, 첫시행의 경우 협동적 선택을 하고 그 이후 시행에서는 협동과 이기적 선택의 순

<표 1>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의 척도별 점수

| | 평 균 | 표준편차 | 상위 30%점수 | 하위 30%점수 |
|-------|-------|-------|----------|----------|
| 친애경향성 | 19.89 | 18.04 | 30 | 10 |
| 배척민감성 | 23.84 | 18.40 | 34 | 14 |

서를 우선적으로 했다.

중속 번인의 측정: 협동 선택의 정도는 총 20회의 본 시행에서 피험자가 협동을 선택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즉, 피험자가 A인 경우 X의 선택비율, 피험자가 B인 경우 O의 선택비율이 중속 측정치가 된다.

실험 절차 및 조작 검증: 두명의 피험자가 모두 실험실에 도착하면 간단히 실험 목적을 설명하고 각 피험자의 앞에 놓여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실시했다. 게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회의 연습 시행을 하고 게임진행에 관한 질문이 없으면 20회의 본 게임을 했다. 그리고 나서 조작 검증용 5문항에 응답함으로써 실험이 끝났음을 알렸다.

매 시행마다 게임 매트릭스 옆에 자신의 총점과 상대방의 총점, 자신과 상대방의 총점의 합을 제시해 주었다. 게임에서의 상금은 이기적 선택을 하여 자신의 총점을 높임으로서 받을 수도 있고, 협동적 선택을 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총점의 합을 높임으로서 받을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은 같게 하여 이기적 선택 및 협동적 선택의 유인가를 같게 하였고, 이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피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이 모두 끝나고 2주 후에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정하여 실험 목적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게임 상대방이 프로그램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혀 양해를 구했다.

조작 검증 결과

권한의 소유정도에 대한 조작 검증: 모든 피험자도 하여금 게임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도를 7점 척도상에(0: 매우 불리했다~6: 매우 유리했다) 응답하도록 했다. 그 점수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높은 권한조건($M=4.74$, $SD=1.16$)과 낮은 권한조건($M=1.15$, $SD=1.11$)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_{(66)}=13.05$, $p < .000$]. 따라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권한 소유정도에 대한 조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상대방의 반응 책략에 대한 조작 검증: 게임 상대방의 협동적 선택 정도에 대해 피험자가 보는 관점을 7점 척도상에(0: 매우 협동적이지 않다 ~ 6: 매우 협동적이다) 응답하게 했다. 그 결과 각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고 [$F_{(3,4)}=.39$, n.s.], 전체 평균은 2.69로 상

대방이 중간 정도의 협동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상대방을 협동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특정 반응 유형으로 인한 영향 요인은 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에 대한 진실성 정도를 역시 7점 척도상에(0: 전혀 진실하지 않다 ~ 6: 매우 진실하다) 응답하게 한 결과, 피험자들이 전체적으로($M=3.86$) 실험의 내용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는 게임의 상대방이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된 상대방'이라고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화동기 집단($M=4.18$, $SD=1.31$)과 거부걱정 집단($M=3.53$, $SD=1.26$)간에 주효과가 있었다 [$F_{(1,64)}=4.22$, $p < .05$]. 즉, 친화동기 집단이 거부걱정 집단보다 더 실험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협동선택 평균 점수는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네 집단 모두 50%가 넘는 높은 협동적 선택을 하였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각 피험자가 이기적 선택을 더 많이 하는 일반적인 경향(Pruitt와 Kimmel, 1977)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친애동기유형에 따른 주효과 [$F_{(1,64)}=4.30$, $p < .05$]가 있어 친화동기 집단이 거부걱정 집단보다 더 협동 선택을 많이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른 주효과가 있어 [$F_{(1,64)}=6.27$, $p < .05$] 높은 권한 조건 집단이 낮은 권한 조건 집단보다 더 협동 선택을 많이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한 친애동기와 권한의 소유정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_{(1,64)}=5.49$, $p < .05$]. 즉, 친화동기 집단은 권한의 소유 정도에 따라 협동적 선택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거부걱정 집단은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라 협동적 선택에 차이를 보였는데 즉, 거부걱정-높은 권한 집단이 거부걱정-낮은 권한 집단보다 협동 선택을 더 많이 했다. 따라서 가설 4는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식을 이용해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부걱정-낮은 권한 집단은

<표 2> 친애동기 유형과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른 협동선택 점수

| 친애동기의 유형 | 권한의 소유정도 | | |
|----------|---------------------------|---------------------------|-------|
| | 높은 권한 집단 | 낮은 권한 집단 | 계 |
| 친화동기집단 | 77.65(22.92) ^a | 76.76(26.04) ^a | 77.21 |
| 거부걱정 집단 | 79.12(16.03) ^a | 52.65(23.86) ^b | 65.88 |
| 계 | 78.38 | 64.71 | 71.54 |

* $p < .05$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 a, b문자는 문자가 다른 것끼리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을 표시 (Scheffé 사후 검중).

나머지 세 집단 (거부걱정-높은 권한 집단, 친화동기-높은 권한 집단, 친화동기-낮은 권한 집단)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협동 선택을 하였고, 후자의 세 집단간에는 협동 선택 정도에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논 의

친화동기 집단이 거부걱정 집단보다 더 협동적이었다. 이는 친화동기 집단이 거부걱정 집단보다 실험을 더 진실하게 평가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는 특성이다.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의 신뢰적 특성으로 제 3자나 상황뿐만 아니라 게임에서의 상대방을 신뢰하여 협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친화동기의 신뢰적 특성은 Mehrabian과 Ksionzky(197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친애동기의 접근적 요인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친애동기와 권한 소유정도에 따라 구분된 4집단 모두 50%가 넘는 높은 협동적 선택(전체 평균=71.54)을 하였다. 이런 결과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PDG)에서 보통 이기적 선택이 우세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Pruitt와 Kimmel, 1977)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더우기 높은 권한 조건의 피험자($M=78.38$)가 낮은 권한조건의 피험자($M=64.71$)보다 더 많은 협동 선택을 하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크게 경기자의 개인적 요인과 게임 상황 요인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적 요인에 관한 측면을 살펴볼때, PDG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가 개인의 성격요인을 무시하고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높은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보수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 선택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Maki, Thorngate와 McClintock, 1979)이나 본 연구처럼 개인이 지닌 성격 요인의 특성이 고려되면 이에 따라 협동적 또는 이기적 선택의 경향성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 예를들면,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관(Protestant Work Ethic: PWE)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성취욕과 경쟁적 특성이 강해 PDG에서 이기적인 행동 특성을 더 많이 보였다(Furnham과 Quilley, 1989).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인 지향적 특성인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높은 권한이라는 유리한 상황이 주어졌을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이익도 더불어 고려하려는 성향이 유발되어 협동적 행동 특성을 보인 것이다. 특히 자신이 높은 권한조건에 있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 보수의 총점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상실하게 되는 보수의 양에 더 민감하여, 개인적 이익 보다는 상대방과 자신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동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자아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아 발달 단계상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특성은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그 문화의

가치관과 이것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쳐 아동에게 전수되는 지에 의해 결정된다. Axelrod(1984)는 협동을 증진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로 아동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나 학교가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타인의 복지도 고려하게 하고, 타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도록 가르치는데에 주력하는 사회라면 PDG에서도 경기자간의 협동이 쉬워질 것이다.

PDG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협동 선택이 우세한 두번째 원인으로 본 게임의 상황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게임에서 실제로 보수(pay-offs)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실제 보수는 없으면서도 단지 유인가가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반응 유형이 나타난다. 즉, 실제로 보수가 주어지고 게임 상황도 현실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기적 선택이 더 많았다(Furnham과 Quilley,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게임 직후에 바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매트릭스에서 제시된 보수의 크기나 매트릭스 제시 상황이 현실감이 적었기 때문에 보수를 최대로 얻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대해 피험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협동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부걱정-낮은 권한조건, 친화동기-높은 권한조건, 친화동기-낮은 권한조건)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협동적 선택을 가장 적게 했다. 본 실험상황에서 낮은 권한 조건에서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가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상대방과의 점수의 합이 최고가 되게 하여 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거부걱정적 특성이 많은 사람은 낮은 권한 상황에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 이기적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Mehrabian과 Ksionzky, 1974)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이다. 즉, 친애동기의 회피적 요인 특성인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높은 불안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기 어려운 악순환을 야기하며 또한 이들이 사회적 기술 역시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여기서 거부걱정이 많은 사람이 높은 권한 조건에서는 친화동기 집단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협동을 했다는

점은 특히 의미있는 현상이다. 거부걱정이 많은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불리한 조건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불안 수준이 높아져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이 권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협동 행동을 한 것과 비교할때 거부걱정적 특성이 상황요인에 안정되지 못하며 특히 불리한 조건에서의 부적응적 행동을 한다는 점은 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거부걱정적 특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처럼 안정되고 신뢰로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원만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과 환경과의 함수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동기는 개인과 환경간의 밀접한 역동적 관계로 포괄되므로 이런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상의 지각적, 인지적 특성이나 여타의 동기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서 탈피하여 동기연구와 사회심리학을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표준화함으로써 실험자나 실험 상황의 특성이 통제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피험자가 실험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제시된 지시문을 읽어주는 대신에 녹음기를 이용하면 보다 통제된 실험이 될 수 있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 시내 2개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대생 집단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PDG에 영향을 주는 상대방의 반응 책략, 시행 수, 보수의 크기 및 유형을 고정시켰으므로 이들 변인들로 인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여러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첫째, 친애동기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McAdams, 1980; Stewart와 Chester, 1982)를 근거로 친애동기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친애적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부정하기에는 성차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친애동기의 두가지 요인의 측정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와, 본 실험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협동행동의 선택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친애동기의 측정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이 각기 어떤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한국내에서의 자료가 없다. 친애동기와 같은 사회적 동기는 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문화와 비교해 볼때 공통요인 및 특수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냄으로써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의 친애적 행동 및 성격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친애동기의 두가지 요인과 상대방의 특성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상대방의 책략을 통제시켰는데 친애동기는 대인 지향적인 사회적 동기이므로 상대방의 특성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일관된 협동 반응을 하거나, 일관된 이기적 반응을 할 경우 혹은 상호성 규칙(TIT FOR TAT)에 의해 반응할 경우, 친애동기의 두가지 요인은 협동행동에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특성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친애동기의 특성을 보다 역동적인 현실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차재호(1984). 동기진단 검사. 전인교육발전 연구소
- Atkinson, J.W., Heyns, R.W., & Veroff, J. (1954). The effect of experimental arousal of the affiliation motive on thematic ap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405-410.
-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Inc.
- Boyatzis, R.E. (1973). Affiliation motivation. In D.C. McClelland & R.S. Steele (Eds.). *Human motivation : A book of readings*.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Furnham, A., & Quilley, R. (1989).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the prisoner's dilemma gam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79-87.
- Jones, E.E. (1964). *Ingratiation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Jones, E.E., & Gerard, H.B.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John Wiley & Sons, Inc.
- Maki, J., Thorngate, W., & McClintock, C. (1979). Predic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03-220
- McAdams, D.P. (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 413-432.
- McAdams, D.P. (1982b). Intimacy motivation. In A.J. Stewart (Ed.). *Motivation and Soc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McAdams, D.P., & Constantian, C.A. (1983). Intimacy and affiliation motive in daily living : An experience sampling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4), 851-861.
- McAdams, D.P., & Vaillant, G.E. (1982). Intimacy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86-593.
- McClelland, D.C. (1985). *Human motivati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ehrabian, A. (1976). Questionnaire measures of affiliation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Psychological Reports, 38*, 199-209.
- Mehrabian, A., & Ksionzky, S. (1974). *A theory of affiliation*. Lexington, Mass : Heath
- Miller, N.E. (1951). Comments on theoretical models illustrated by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 Personality*, 20, 82-100.
- Pruitt, D.G., & Kimmel, M.J. (1977). Twenty years of experimental gaming: Critique, synthesi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363-392.
- Shiple, T.E., & Veroff, J. (1952). A projective measure of need for affil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3, 349-356.
- Solar, D., & Mehrabian, A. (1973). Impressions based on contradictory information as a function of affiliation tendency and cognitive style.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6, 339-346.
- Solomon, L. (1960). The influence of some types of power relationships and game strategies up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2), 223-230.
- Stewart, A.J., & Chester, N.L. (1982). Sex differences in human social motives: Achievement, affiliation and power. In A. J. Stewart (Ed.), *Motivation and soc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Walker, E.L., & Heys, R.W. (1962). *An anatomy for conform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The Effect Of Affiliation Motive And Power Upon Cooperative Behavior

Young-Mee Kim and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 effects of the affiliation motive, a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 and the level of power-holding, an environmental factor, upon the cooperative behavior. In the subject screening stage, 568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tested on the Affiliation Motive Scale (Cha, 1984). And on the base of the result of the subject screening stage, intimacy group and fear of rejection group were divided. In the experimental stage, the Prisoner's Dilemma Game(PDG) was used to manipulate the power level and to measure the degree of cooperative moves. The results of an ANOVA were as follows : The total mean of cooperative moves score was high. The intimacy motive group cooperated more than the fear of rejection group and the high power group also cooperated more than the low power group. Also, since the intimacy motive group did not influence the power-holding level, they showed high cooperative moves consistently. The fear of rejection group was similar to the intimacy motive group when they were in the high power condition, but in the low power condition, they showed the least cooperative moves.